

# 한국 청소년의 성적 불평등과 과제

이 덕 주\*

- I. 문제의 제기
- II. 성적 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 III. 맺음말

## I. 문제의 제기

### 1. 청소년과 성역할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적 위치로서 단순히 신체적 생리적 성숙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성역할 개념 발달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지각되어져서 성격, 인지활동 등 사회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행동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

향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 시기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으로 외형적으로 성인 남녀의 모습이 되어가므로 아동 초기에 과상적으로 알고 있던 성역할 개념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힘을 가진 행동의 준거로서 작용하게 된다.<sup>1)</sup>

### 2. 성역할 정체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 특성과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성역할 정체감'이라 하는데<sup>2)</sup>,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의 독특한 측면으로서, 보다 자신의 성에 적절한 성역할 행동을 보이는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적 *masculine*' 혹은 '여성적 *feminine*'의 2개 개념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성국장

1) 진미석, 한국고등학생들의 성역할 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pp2-3.

2) 이세연, "여자대학생의 장래 계획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여성 연구 제22권, 1983, p5.

대별된다.

전형적인 남성다움은 공격성, 독립성, 지배성 등이고 전형적인 여성다움은 온화함, 양육성, 복종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모든 남성은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그리고 모든 여성은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킬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기대되었다. 따라서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을 강하게 동일시하지 못하거나 이성의 성역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남성은 '남성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성역할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 기대에 대한 강한 동일시는 부정적인 심리 결과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Block은 전통적 성역할유형은 성격성장에 여러가지 제한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높은 '남성성'은 불필요한 경쟁과 지배력, 비민감성을 조장시키고, 반면에 높은 '여성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무능력을 조장시킨다고 주장했다.<sup>3)</sup>

Ambert는 Murdock이 조사한 '남녀 성역할 구분의 지역사회별 비교'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어 왔다고 간주할 수 있는 남녀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고정관념이 남성이 우월하다는 편견과 남녀차별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다.<sup>4)</sup>

또한 Bem은 대단히 여성적인 여성들은 높은 불안수준과 낮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낮은 자아수용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지극히 남성적인 남성들은 신경증적 경향 그리고 낮은 자아수용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그래서 Bem은 바람직한 새로운 성역할의 개념으로서 양성성 *androgyny*을 제시하였다.

양성성 개념에 따르면, 소년나 여성은 정서적이고 온화하며, 이해심이 많고, 부드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독립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며 모험적, 지적, 자기신뢰적, 야망적 그리고 압력하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또한 소년이나 남성들도 유사하게 정서적이고 온화하며 이해심이 깊은 등의 여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남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3. 현대사회와 청소년의 갈등

현대사회는 남녀의 역할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람들의 의식구조상에 내면화 되어온 전통적 성역할 기대는 사회가 치 및 문화적 유형의 변동에 비해 그 변화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

3) 정희경, 전남지역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재인용

4) 정희경, 전제서, p5, 재인용

5) Bem, S.S. & Watson, M. W., 'Sex Typing and Androgyny: Further Explorations of the Expressiv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 34, No. 1, 1975, pp1016-1023.

행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대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남녀는 내면화된 성역할 정체감과 바람직한 사회인상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인격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인 성역할 정체감의 획득은 배우자 선택, 직업선택 및 사회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본 연구는 바람직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공헌할 인격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기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시켜서 왜곡된 인간상을 키워내는지 밝히고 그 과제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성적 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Ambert는 성역할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제로서 가정, 공식·비공식 교육기관, 또래집단과 대중매체를 들고 있다.<sup>6)</sup> 그야말로 전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성차별 교육은 개개인에게 전면적,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자녀양육과 성별 분업

#### 1) 가정에서의 성역할 교육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간 관계를 배우고 사람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식 수준에서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남녀는 각기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생각으로부터,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 행위에 따르는 비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구분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거의 하루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성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지극히 성차별적인 사회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갓난아기 때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을 주로 입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갓난아기를 안고 소근대고 얼르는 것이 여자아기인 경우 더 빈번하고, 테리고 놀 때에는 남자아기인 경우 신체적으로 더 과격한 운동을 시킨다는 것 등, 생각없이 그냥 하는 부모의 무수한 행동이 실제로 아기의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내용과 하면 안되는 행동이 실제로 아기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이 밝혀지고 있다. 커가면서 구별은 더욱 엄격해져서 어린이는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내용과 하면 안되는 행동의 내용이 다름을 알게 된다. 남자 어린이의 경우, 부모는 로보트나 트럭을 사다주고

6) Anne Marie Ambert, *Sex Structure*, Longman Canada Ltd., 1975, p70

그것을 가지고 놀면 만족해 한다. 그러나 그 어린이에게 인형을 사다주는 부모는 거의 없다. 혹시나 누나의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하면, 부모는 “사내애가 무슨 인형놀이냐, 계집애같이” 하고 꾸짖거나, 내버려 두더라도 최소한 이를 장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여자 어린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면 칭찬을 받지만, 혹시나 골목에 나가 동네 꼬마친구들과 공이라도 차다가 넘어져서 집에 오면 위로 대신 “계집애가 사내애들하고 어울려 공이나 차고 다니니까 그렇지”하고 꾸중 듣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어머니가 딸보다는 아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더 너그럽게 장려 또는 허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사회 일반의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성별에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칭찬, 상, 또는 은근한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은 꾸중,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의 한 부분을 일찌기 잠재워 버리게 된다.

한편 어린이는 더욱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역할 구분을 배우는데 이는 주로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많은 행동을 자기를 돌보아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배우게 되는데,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를,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어린이가 이러한 성역할과 성적 고정관념을 사회화 과정 안에서, 특히 보상과 처벌, 그리

고 일정한 역할 모델을 습득하면, 이는 곧 어린이의 자아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전제를 발전시킨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일단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보상과 처벌에 관계 없이도 자아개념에 부합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곧 초기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유지 존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는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의 성별에 따라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과 성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회의 전체적 경향성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는 입시 제도와 비민주적인 가족 및 사회 질서에 짓눌려 고정관념을 극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보다 더욱 엄격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행동양식을 강화 실천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성의 행동을 뚜렷이 구별짓는 성역할 규범은 일찍부터 남녀 청소년 모두의 발달과 가능성을 제한하고, 나아가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제한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려면 각자가 자신의 성별에 매임이 없이

스스로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2) 가정교육의 과제

최근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고수하는 가정보다는 이를 깨뜨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취동기가 높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보고나 직업을 가진 어머니를 둔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다는 보고는 성별분업이 제한된 영역에서의 자녀교육에도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의미의 사회화에서도 순기능적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현재의 성별분업에 의해 사회화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인가 하는 또하나의 질문을 제기하며 이는 인성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논의로 이어진다. 곧,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현대 산업사회의 맥락에서 재정의 되어야 함을 뜻하고 전통적 의미의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자녀교육의 문제를 성별분업과 연결시켜 본 결과 현대의 자녀교육에 있어 성별분업은 불가피하거나 순기능적인 것이 아니며 성별분업의 새로운 조정을 통해 자녀교육문제의 상당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분업을 둘러싼 경직성을 푸는 것이며, 따라서 자녀교육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을 더욱 충실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역을 강화함으로써가 아니라 현존하는 성별분업체

를 재조정하고 이렇게 재조정된 분업체계가 순기능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2. 학교교육과 성차별

### 1)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차별 실태

학교에서 교과서는 절대적이다. 모든 학업이 교과서 위주로 계획, 진행된다. 게다가 단 한권의 국정 교과서나 기껏해야 서너종의 검인정 교과서 뿐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즉 현사회의 지배 질서의 의식과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교과서 내용을 통해 사회통념을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교과서 내용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교과서 편찬자들의 90% 이상이 남자이고, 단원-작품마다 작가가 드러나는 국어 교과서의 경우 작가의 90% 이상이 남자이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평균 75% 이상이 남자 주인공이다. 이들 남자들은 주인공 역을 맡아 큰 과업을 성취하는 인물로 나오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어 남편이나 아들을 통한 보상심리를 갖고 있으며,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여성작가 또는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는 거의 결혼 여부를 밝힌다. 기혼여성은 물론 하나 같이 가정주부역이다.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35%를 넘는데도 말이다.<sup>7)</sup>

7) 조은, “성별분업은 자녀양육에 순기능적인가”, 또 하나의 문화1, p40, 1985.

8) 민교협 여성부, 성차별 극복을 위한 자료집 1, p3.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성은 직업 분포에도 나타난다. 교과서 등장인물의 54%가 전문기술, 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전체 취업인구 중 7%만이 전문기술, 행정직에 취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노동자일 경우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미래는 순종적인 여인이나 출세한 남성을 꿈꾸게 된다.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여학생도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사랑받는 여인이 되길 원한다. 자라서 당연히 다들 꿈꾼 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자신의 무능력, 불운 정도로 여겨 체념, 비판에 빠져 현실개혁의 의지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것의 일차적 이유는 아마 교과서가 그런 가치관을 강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차별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과서의 예를 들자면 방대한 분량이 되겠지만 지면 관계상 몇몇 예를 들어 보겠다.

#### (1)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의 경우

도덕교과서는 과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의 남녀차,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의 표현, 위인들의 남녀비율, 성 역할 분담 등에서 현저하게 남녀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1, 2학년 바른 생활과 3~6학년 도덕 1학기 교과서내용과 삼화를 통해서 살펴보자.

##### ○ 과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과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이란 그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주도하거나 관철하는 입장에서서 그 과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을 말한다. 3-6학년 1학기 도덕교과서 중 여자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15%이고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42%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남성 편향적이다.

또 본문 내용에 성 구분없이 삽화는 남성 모습을 제시하여 역시 남성 주도로 묘사하며(예 3-1 1. 생각하는 어린이 4쪽), 동물이 등장하는 내용의 경우도 거의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3-17. 서로 돕는 마음72쪽, 삼화 참고)

이를 통해 남녀 학생들은 남성이 인간을 대표하며 모든 일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성으로, 여성은 그에 비해 열등하고 비중심적인 성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이다.

##### ○ 등장인물을 수식한 형용사의 남녀 비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수식하는 형용사가 매우 다양하나 여성의 경우에는 몇몇의 특정 형용사에 한정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충성스럽다, 기특하다, 용감하다, 신중하다, 너그럽다, 훌륭하다' 등의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다.

##### ○ 남녀 위인 수 비교

본받아야 할 위인의 경우에도 18명 중 16명이 남성으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덕목 역시 남성의 경우 탐구, 창의, 근면 등 다양한 반면, 여성의 경우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 유관순과 신사임당 2명에 불과하며 덕목 역시 봉사, 희생 등에 그치고 있어 수동적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 ○ 성별 역할 분담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직종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치가, 예술가, 농부, 광부, 군인, 과학자, 경영인 등 다양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자, 판매직, 기능공 등의 소수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중략)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 맡은 바 할 일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 그 옷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중략)...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이 사회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5-1 서로돕는 사회 96-97쪽)라고 기술하고 남성만 일하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마치 여성은 사회적 동물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예로써 ‘밀에서 빵까지’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삽화 역시 여성의 일하는 모습이 배제되어 있다(5-1, 앞의 책, 101쪽).

#### (2) 국민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5학년 1학기 58쪽 ‘살기좋은 사회’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가난, 질병, 교육 등에 대하여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쓰고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마련해 준 여러가지 일터의 모습이 삽화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성의 모습은 아예 하나도 없다. 실제의 사회에서는 많은 일터에서 여성 수백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사회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가정의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서는 식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한다. 상현이네는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비닐하우스에서 가꾼 채소를 내다 판 수입으로 살아간다. 숙희네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은 봉급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또, 영희네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봉급과 옷가게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한다.”(5-1, 2. (1) 우리집의 살림살이, 70쪽)고 기술하고 대부분은 남성만 일하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여러 가정의 살림을 꾸러가기 위한 소득을 아버지(남성)가 담당하고 여성의 경우 거의 소득의 보조자로 그려지고 있어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집안의 가사일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음을 화살표 중앙의 그림으로 명백히 제시하고 있어 남녀성별역할을 고정시키고 있다.

또 민주정치, 선거, 삼권분립, 법원, 자치생활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삽화에 일방적으로 남성들만을 나타내고 있으며(6-1, 3. (3) 오늘날의 민주정치제도, 158쪽; 3) 법원, (72쪽) 시장, 물가, 상인, 가격, 저축 등의 내용에는 어김없이 여성들의 사진이나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다(5-1, 2. 3. 105쪽 불가와 우리생활). 본문의 내용에는 객관적인 설명을 하면서 삽화로써 여성은 단순한 가사노동 담당자이며 남성은 사회 중심적인 일을 하도록 제시함으로써 해서 기존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힘을 키워줘야 할 사회교육이 현실사회의 모습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 (3) 중학교 가정·기술 교과서의 경우

성별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은 가정, 기술 뿐만 아니라 교련, 체육, 무용등이 있다.

가정교과에서 교육목표를 원만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향상도모 등으로 들고 있지만, 배운대로만 되는 거라면 학교에서 가정이나 기술을 배운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는 어렵어진다.

가정교과는 의식주, 아동양육, 가족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교과는 목재이용, 해

양, 금속, 기계, 전기, 경영관리, 에너지 등으로 꾸며져 있어 균형 있고 조화된 인간능력 발달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 교과서에서 '가정속의 개인은 앞으로 인류사회 존속을 위해 그의 기본적 구실들을 계속 해야한다'며 기존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노동단축으로 생긴 여가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업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하여 사회 참여는 시간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것이고 취업도 어디까지나 기계보조자 정도로 규정한다. 교과서는 계속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경우의 처신도 서술하고 있는데, '가정내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가족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의생활 부문에서 가정교과서는 여성을 인형으로 만드는데 서슴치 않는다. 여성은 노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른 체형을 풍부하게 보이는 법이나 코트셋으로 엉덩이나 배를 받쳐주고 통학복은 블라우스나 스커트를 기본으로 하며... 등등을 통해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들로 표현한다.

이런 교육을 오래 받으면 받을 수록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 누구나 갖춰야할 생활의 기본 능력을 잃어버려 아내가 좀 늦게 귀가하면 쫄쫄 굶거나 라면이나 끓여 먹는 남편과, 전기휴즈가 나가면 깜깜한 밤중까지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불편하면서도 궁합이 맞다고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일부 성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만 해도 남자들은 자동차 구조등이 기술교과에 나오므로 아주 쉽게 여기는데, 여성 응시자들에게는 구조

시험이 곤욕인 것이다. 교육이 사회의 미래를 지향하기는 커녕 사회의 변화만큼도 못 따라가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다 보니 자기의 삶의 목표를 결혼으로 잡고 결혼 이후나 결혼 이외의 삶은 계획할 줄 모르는 인간이 전 국민의 반이나 되어 버린다. 또 나머지 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등 가족간의 갈등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입고 먹는 것도 챙길줄 모르는 면에서 마찬가지로 교육 때문에 불완전해진 인간들이다.

#### (4)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

영어는 국제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등의 교육목표를 지닌다. 그러나 영어도 본문이나 예문을 통하여 일상의 고정적 성 역할 분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영역 담당으로 고정화시킨다.

직업표현을 볼 때, 기술자, 사장, 파일럿 등은 으레 남성이고, 간호원, 타이피스트 등은 앞의 인물 설명 없이 여성 대명사로 받아 버린다.

과목내용도 "상호는 마라톤 대비연습을 하고 수미는 백화점에서 블라우스를 사고 싶어합니다"하는 식이다. 중1 영어를 보면, 아들이 학교가는데 양말과 도시락 챙겨주는 어머니 이야기 바로 다음 단원에 여학생에게 항상 치마, 블라우스를 입고 인형 갖고 놀기 좋아하는 깨끗한 여자아이와 비교하며 그러기를 요구하는 어머니가 나온다. 영어문장 속의 가정도 아버지는 신문 보고 어머니는 요리하는 장면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비교문장 예문 등을 통하여 성역할 분담과 여성의 상품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이면,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로 받고 여자는 아름답고 날씬하고 가사노동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기껏 만들어내는 예문이,

-그녀는 자신의 머리 스타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녀는 똥똥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녀는 젊은이를 보고 매혹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본다.

등 일일이 해야될 수 없다.

감히 다른 교과서에서는 차마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남성 의존적 여인상도 영어로 표현되기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낌없이 나타난다.

-그가 춤을 청하지 않는 것은 그녀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녀를 부축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틀거리 넘어질 것이다.

-그녀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다(그는 함께 놀 사람이 필요했다)

-가정과 남편은 여성에게 절대적이다.

-그녀는 이혼을 하고 나면 미쳐버릴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없어서 외롭다.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에게 달달 암기시키는 영문법, 문장 뒤에는 이갈이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비판 등의 여지도 없이 머리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영어과목인데, 즐거리나 예문같은 연상작용을 통해 단어 하나 얻는 대신 사회모순, 자신의 가치관은 어떻게 왜곡될지 염려된다.

## 2) 기타 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 (1) 특별활동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를 통해 전인적인 사회인으로 기르기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의 성 역할만을 주입, 강요하는 편파적 교육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단체 중의 하나인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은 비교적 전인 교육을 실현시키려 캠프 등 차별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교육 지침서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카웃은 연 만들기, 교각 만들기 등 공작기능과 신년계획짜기, 캠프에서 배수로 만들고 천막치기, 낫-칼등 공구사용, 자일 사용법 등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기본적 능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걸스카웃은 가정간호(환자 다루기, 병실 홀이불 갈아끼우기, 환자 옷 입히기, 찜질, 소독, 별균), 차 끓이기, 피복관리, 주택관리, 육아(젖 떼기, 간식 주기, 버릇 들이기), 카드만들기, 음악감상, 가족간 예절, 외국 의상 발표회등 주로 가정 내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가사노동의 실습위주로 그 내용이 짜여있다.

그 밖에 여학교 경우, 수예반, 조리반, 꽃꽂이반 등이 남학교와 달리 나타나는데,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꽃꽂이반의 교육목표를 삭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여 집안에서도 자연을 감상하고 즐길 줄 알게 한다는 것과 여가선용으로 여성적인 품성을 기르도록 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의 역할을 주부에 한정하면서 보조자, 내조자로서 부각시키고 생산적인 기능 보다는 소비

위주의 생활패턴을 은연중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 (2) 생활지도

생활지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용의 복장 지도이다. 화장실 표시도 남자는 바지로 여자는 치마로 표시하듯이 여학생은 치마를 입는다는 생각이 고정화되어 일부 여학교에서는 매주 또는 매월 ‘치마 입는 날’을 정해 수동적이고 다소곳한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바지가 치마보다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성차별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사다. 그런데 교사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사용언어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웃음 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 “여학생답지 못하게 시리...” “사내자식처럼 그게 뭐냐, 단정치 못하게” “여학생 교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든지 “사내대장부가 그깟일로...” “남자는 통이 커야지” 심지어 여교사가 “남자가 이런 일도 못해” “남자가 왜그래, 난 여자래도 안그런다”라는 등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애매 모호한 틀로 여성의 자유로운 이성발달을 방해하고 수동적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다.

### (3) 교육목표

각 학교의 교훈과 급훈을 보면 남학교의 경우 ‘참되게 살자’ ‘스스로 행하자’ ‘성실’ ‘정의’ ‘창조’ ‘신의’ ‘강건’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덕목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교의 경우 ‘진선미’ ‘사랑’ ‘착하고 아름답게’ ‘맑고 깨끗하게’ ‘밝고 명랑하게’ ‘순결’ ‘인내’ 등 일면

적이고 차별적인 가치관들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평등한 교육을 실천시킬 수 있는 남녀공학의 경우에도 학급, 반 배열, 출석번호 등 사소한 행정절차 및 지도 방법에까지 남학생 우선으로 행하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을 당연시하게 하고 있다.

### 3) 학교교육의 과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학교교육 내의 성차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인자로서 사회 현실과 그 현실의 모순들을 지양-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우리들은 설문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의식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sup>9)</sup> 그것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강요하는 불평등한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제반 교육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교육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구조가 변화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내의 성차별교육의 철폐, 즉 교과서의 개편과 교사의식의 변혁, 진로교육의 평등화와 아울러 현재 제도교육의 성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관료적인 교육구조를 바꾸어 나가

9) 이미연,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 교육”, 여성 1, 장작과 비평사, 1985.

야 할 것이다.

### 3. 여성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대중매체

현대인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방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자동차 속, 직장 그 어느 곳에서든 대중매체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있을 수가 없다. 나날의 소식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습관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거리와 오락장소를 메우는 대중가요, 지하철 천장에까지 빈틈을 두지 않는 각종 광고의 홍수, 자극적인 영화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동반되고 있는 TV, 라디오, 신문, 영화, 대중가요, 광고, 잡지, 만화 등 대중매체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여성에 대한 인식의 기초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더불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매체가 표현하는 여성의 모습은 그것이 대중매체 속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즉 '나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도 통용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가치관의 형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아형성, 남성의 여성관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중매체는 몇 가지 유형, 특징적인 몇몇 속성을 지닌 여성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여성 모두의 천성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해준다.

다음은 바로 이런 규격화된 여성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 1) 남성의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여성

##### (1) 남성의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여성

대중매체는 남성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남자의 야망에 덧붙여지는 부차적인 것이거나 일생의 한 시기를 휘어잡는 열정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남성이 사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그는 다소 '모자란 데'가 있다거나 '사랑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남성'이라면 피해야 할 경우'로 표현하게 마련이다. 혹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남성은 그 사랑의 지고성이 그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다소 철학적 인간형,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사랑은 인생의 전부이고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남성의 사랑이 있어야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 마치 비정상이거나 이미 '여성'의 매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2) 여성의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성의 영상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신문, TV, 광고 등 일반 대중매체로 부터 청소년잡지, 청소년만화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대부분의 광고들이 그것이 여성 화장품 광고이든 청소년을 겨냥한 음료수 광고이든 여성의 몸을 유혹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아예 성 자체를 주제로 하는 영화나 비디오들의 외설성은 문제제기 자체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광고는 대부분 상품 구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특히 가정주부)을 겨냥하고 있어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TV프로에서처럼 남성의 성적 유희의 대상, 남성의 보조역, 남성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이 주로 대담하고 야량있는 활동적인 모습으로 연출되는 반면 여성은 순종적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양탈 부리는 아내역으로, 작은 일이나 기뻐하고 화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성차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미인은 잠꾸러기”, “저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아내는 역시 여자더러구요” 등등의 선전문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미덕을 고정된 시각으로 매도하고 있다.

게다가 성의 상품화는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데 여성 신체의 특정부위를 확대시키거나 과다하게 노출시킨 선전은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성관계 기사나 광고, 영화, 비디오 들은 여성을 성욕의 대상으로만 즉 성적 폭력의 표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여성 자체를 성과 성에 대한 관심으로만 차 있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문제의 원인이 성욕이 촉발되는 남성이 아니라 그것을 촉발시키는 여성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는 남성 위주의 성차별적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 (3) 현모양처상 주입

종종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상에 대립되어 드러나는 대중매체의 여성은, 인내와 순종의 미덕을 지니고 가족 전체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완벽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이다. 특히 TV드라마는 한국형 현모양처의 양산소가 되어 왔는데, 역대 인기 연속극의 계보에 속하는 ‘여로’ ‘아씨’ ‘새엄마’ ‘신부일기’ ‘보통 사람들’ 등은 지금도 기억될 수 있을 정도의 전형적인 현모양처를 주인공으로 등장

시켰다.

지금의 드라마에서는 과거보다는 현모양처상의 추구가 미약해진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엄마(김창숙 분)나 ‘까치 며느리’의 둘째 며느리(하희라 분) 등이 있다.

또 대중매체는 여성이 직장을 갖더라도 아내, 주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긍정적인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변화된 현실 조건 속에서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불화는 종종 아내의 가사일 소홀, 아이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 등한시, 주부의 지나친 자기일 욕심이 원인인 것으로 그려질 뿐이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남편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무관심, 여성만의 양육책임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 구습, 국가의 턱아 문제, 여성 노동문제에 대한 방관,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성취감이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남성위주 사회의 성차별 관행은 별반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늘 부부간의 사랑과 이해, 부인 입장에서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등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안일한 인식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더 교육받은 남자들이 어머니, 아내, 딸, 누이들의 봉사를 받으면서 즐달음쳐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생활과 직업적 성취를 여성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짚어진 채, 그것도 남편의 ‘호의’가 있어 야단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음을 이처럼 당연시 하는 것, 또는 이런 현실에 문제를 던지더라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선량한 남편의

이해심과 봉사 덕분이라는 투의 모든 드라마와 여성문제 토론 프로그램 등은, 일하는 여성에게 끊임없이 불안감과 죄의식을 심어주는 원천이 된다.

당연히 그것을 보고 들으며 자라난 청소년들이 비인간적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4) 정치적 무관심과 소비자로서의 여성상

대중매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을 몸가꾸기에 붙잡아두고 남자의 사랑과 가사노동에만 만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 그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 영역과 생산 활동 영역으로부터 여성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정치란 단순히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 법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현실에의 이해와 참여를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의 절반에게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중매체 속에서 여성은 생산활동의 영역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중산층 여성들, 특히 젊은 가정주부들을 겨냥하고 있는 TV의 아침 프로그램이나 여성잡지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과정에서 여성들은 기껏해야 소비자나 가내수공업자, 유통업이나 하층 서비스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듯이 여성의 직업, 가정부업을 소개한다. 특히 신문, TV, 잡지를 불문하고 광고들은 거개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개발된 여성적 취향, 허영심, 소비를 통한 여성의 대리만족 심리를 겨냥하고 있어서,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것에만 기초해서 평가하는 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남편의 노동의 대가를 축내는 가내 소비자, 소수이기는 하나 소극적인 부업에 종사하는 가계 보조자, 취업자인

경우 비서나 사무직 화이트 칼라, 소수의 자영업(TV의 경우 패션 디자이너, 교수, 예술가, 의사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속의 여성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 198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노동력은 전체노동력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46%가 농업노동이고, 임금여성노동의 75%는 남성임금의 49.5%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직 노동(특히 생산직 노동력의 70%가 섬유, 의복, 고무, 전자등 섬세한 손길을 요하는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노동력에 속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인 경우에도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소비상품들을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고, 가정요리를 실습할 수 있으며, 주부와 어머니의 조건을 넘어 항상 아름답고 매력있는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지닌 여성은 소수의 특권층에 지나지 않는다.

#### 2) 대중매체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대중매체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즉 여성들에게 대중매체는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현실을 감추거나 그 본질을 거짓 선전함으로써 그 현실속에 놓여진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회질서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간형이 되도록 조장하며 적어도 그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이 현실에 의해 불만을 느끼더라도 대중매체는 대리적이고 쾌락적인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도피처를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여성들의 비판의식

을 마비시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적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한  
정시켜 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면서 함께 거론해야 할 것은 대중매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다. 오히려 대중들은 종  
종 대중매체가 유도하려는 방향과는 반대로 자  
신들의 의식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배이데  
올로기에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대  
중매체가 제시하는 가치관이 직설적으로 표현  
되면 될수록 그 경향은 강화된다.

대중들이 보이는 반응의 이러한 측면은 수동  
적인 존재로 대상화되는 그들이 대중매체(혹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주체성을 찾아가  
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리하여 이것은 또한 현재 대중매체가 야기하는  
여성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문제를 지적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  
고도 의미있는 작업임을 시사해준다. 그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개별  
적인 차원에서나마 의식의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여성문제는 사회에 만  
연해 있는 구조적인 여성문제의 한반영에 불과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할 때,  
대중매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성문제를 야기  
하는 현실을 본질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과 결  
부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 III. 맺음말

앞에서 대강 짚어 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성  
차별 이데올로기 주입은 전사회적이고 지속적

이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일생을 통해 집요  
하게 이루어진다. 즉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  
작하여—사실 성차별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태아감별법에 의한  
여아 낙태가 바로 그것이다—가정교육을 통해  
성역할개념을 내면화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성  
차별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주입받아 강화  
실천하며, 대중매체의 대대적인 공세에 의해  
불완전하고 비인간적인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전사회적인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우  
리의 청소년들은 성역할 분할론에 길들여져 다  
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만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은 곧 다양한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하며 자신감이 있고 사회적 압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적으며 다른 사람에게 섬세하  
게 마음을 써 줄 줄 아는 등의 바람직한 인간  
형과는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  
져온다. 오늘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조건들, 즉 살인적인 입시경쟁제도, 부도덕한  
성인의 모습들, 권위적인 사회 질서와 함께 민  
감한 그들을 더욱 방황하게 하고 실의에 젖게  
만들며 올바른 미래 모습을 그리는 데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  
의 본질을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하  
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굳어버린 행동  
양식 때문에 역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나머지 대다수 구성원들은 비판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러한 모습을 강화 재생산시키며 살  
아간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해 나가

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차별을 유도하는 사회의 기존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사회를

꿰어질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회를,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남들과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 참 고 문 헌

- 김영희(1989),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순덕(1989), 가정환경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1983), 한국 고등학생들의 성역할 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혜영(1985),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식(1970),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가치관과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명(1982), 청소년의 사회화교육에 관한 연구, 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세(1985), 여자중고등학생의 미래여성관에 대한 조사 연구, 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경(1988), 전남지역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연(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 계획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 여성 연구 22
- 조 은(1985), "성별분업은 자녀양육에 순기능적인가". 또 하나의 문화 1
- 정진경(1985), "미래를 향해 열린 어린이의 삶", 또 하나의 문화 1
- 이미연(1985),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 교육", 여성 1
- 민교협 여성부(1988), 성차별 극복을 위한 자료집 1
- 전교조 여성국(1991), 성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자료집
- 고광현(1988), "학교교육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 하나의 문화 4
- 이일선(1985), "여성의 의식을 오도하는 대중매체", 여성 1
- 홍석경(1990), "대중매체는 성차별주의의 온상인가", 여성운동과 문학 2
- 전교조 문화국(1991), "TV 상업광고와 청소년 문화", 전교조 문화국 자료집
- Bem. S. L.& Watson. M. W.(1975), Sex Typing and Androgyny : Further Explorations of the Expressive Doma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 34, No. 1.
- Kohlberg. L.(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 Role Concepts and Attitudes, *Stanford Calif. Univ. Press*
- Anne Marie Ambert(1976), Sex Structure, *Longman Canada Ltd.*